

2024년 4/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2024. 9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4. 9월 23일 기준
- 분석대상 : 165개 응답 업체

(단위 : 매, %)

| | 규모별 | | 수출, 내수 비중 | | | |
|-----|--------|--------|-------------------------|-------------------------|---------|-------|
|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출 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 내수 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 | |
| 응답 | 45 | 120 | 39 | 126 | | |
| 비중 | 27.3% | 72.7% | 23.6% | 76.4% | | |
| 업종별 | | | | | | |
| | 전기·전자 | 자동차·부품 | 기계·장비 | 철강·금속 | 기타 운송장비 | 기타 |
| 응답 | 30 | 32 | 33 | 18 | 16 | 36 |
| 비중 | 18.2% | 19.4% | 23.0% | 10.9% | 9.7% | 21.8% |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4년 4분기 전망 BSI '83.0', 3분기 실적 BSI '70.9'

- 국제 정세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내수부진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보이며, 실적의 경우 해외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전자, 기계, 철강 등의 창원지역 수출 종목들이 유럽, 중국 등의 주요시장의 경제 성장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 항목별 전망 BSI : 설비투자(92.7), 매출액(85.5), 영업이익(76.4), 자금 사정(72.1)
- 업종별 전망 BSI : 기타운송장비제조업(118.8), 자동차·부품(81.3), 기계·장비(75.8), 철강·금속(72.2), 전기·전자(53.3)

● 응답 업체 61.8%,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소폭 미달(10% 이내)(5.8%), 크게 미달(22.4%)로 61.8%가 목표 미달성으로 응답
- 목표 수준 달성(24.2%), 소폭 초과 달성(10% 이내)(13.3%), 크게 초과달성(0.6%)로 38.2%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전망
- 대·중견 기업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에 대한 응답이 55.6%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31.7%로 응답하였음.

● 4분기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을 26.6%로 응답해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아

- 이어서 '수출국 경기침체'(21.2%), '유가원자재가 상승'(15.7%), '환율 변동성 확대'(14.1%), '고금리 등 재정부담'(12.8%), '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 이슈'(5.1%),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2.2%)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각각 '내수소비 위축'(24.1%, 30.6%)을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음.

- 응답 업체 66.7%, 최근 지속되는 지정학 리스크(미·중갈등,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가 기업에 ‘고위험(경쟁력 저하 등) 및 일시적 위험’ 영향 미침
 - ‘중립(큰 영향 없음)’(27.3%), ‘긍정(일부 반사이익) 혹은 매우 긍정적’(6.1%)
 - ‘경영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험한 피해는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23.3%),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22.2%), ‘환율변동·결제지연 등 금융 리스크’(20.6%),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4.4%),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10.0%),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9.4%)

- 응답 업체 43.0%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수준과 비슷할 것,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엔’ 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43.0%)가 가장 높은 비중
 -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 더욱 빈번할 것(28.5%), 예측 불가능(17.6%),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8.5%)
 - 문제 대비 필요성 : 대응 필요해 검토 중(40.0%), 매우 필요, 필요성 없음(9.1%), 대응책 이미 마련(7.9%)

-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로는 ‘기존 수출시장 외 신규 대체시장 발굴’(43.0%) 대응하기 위한 사업운영 전략으로 ‘비용 절감·운영 효율성 강화’(33.5%)
 - 운영에 발생한 변화 : 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전환(22.4), 해외 생산 시설 축소 또는 철수(9.1%), 대응조직 신설(6.1%)
 - 대응 전략 :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27.2%),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22.0%),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13.8%), 글로벌 사업 축소(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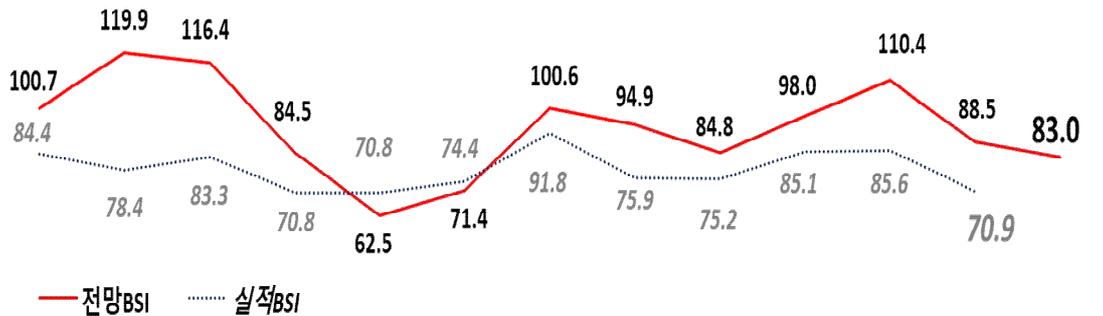
Ⅲ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4년 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83.0'으로 조사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했음. 2024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 BSI는 기준치를 밑돈 '70.9'로 조사되었음.
- 국제 정세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내수부진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적의 경우 해외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전자, 기계, 철강 등의 창원지역 주요 수출 종목들이 유럽, 중국 등의 주요시장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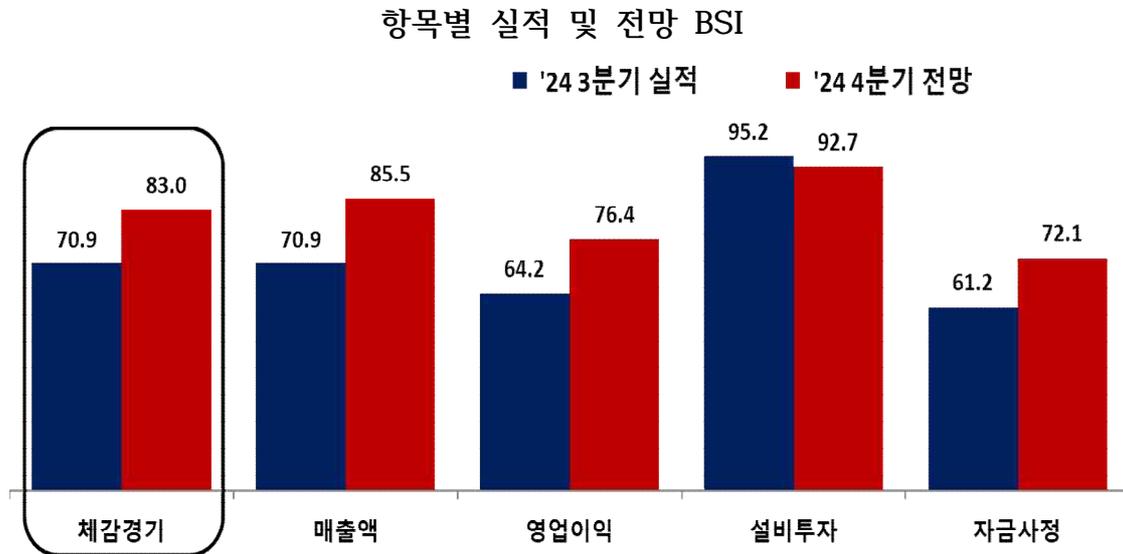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4년 4분기 항목별 전망 BSI는 설비투자(92.7)와 매출액(85.5), 영업이익(76.4), 자금사정(72.1)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했음.
- 설비투자 부분에서는 약보합을 나타냈으나,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함께 매출액 감소가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차입비용 상승으로 자금사정의 실적 및 전망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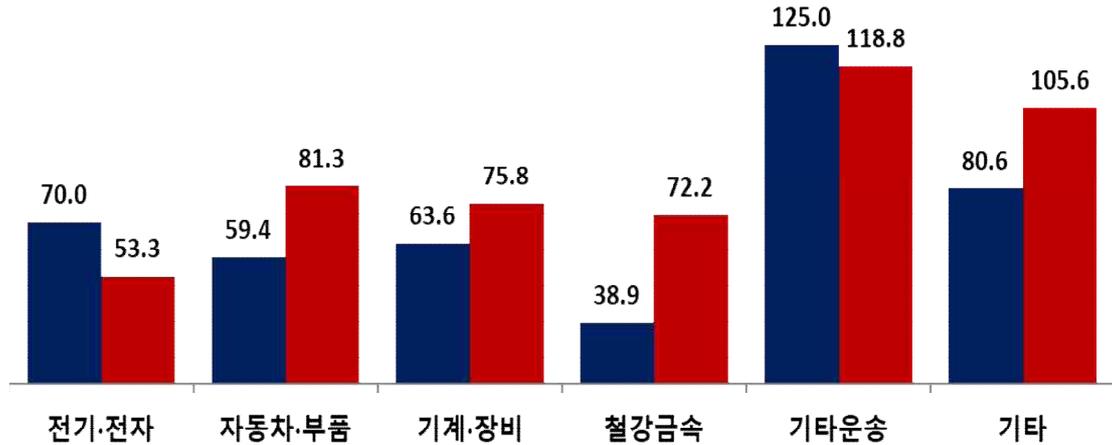


3. 업종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4년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창원산업의 주력 제조업인 기타운송장비제조업(118.8)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자동차·부품(81.3), 기계·장비(75.8), 철강·금속(72.2), 전기·전자(53.3)는 기준치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24 3분기 실적 ■ '24 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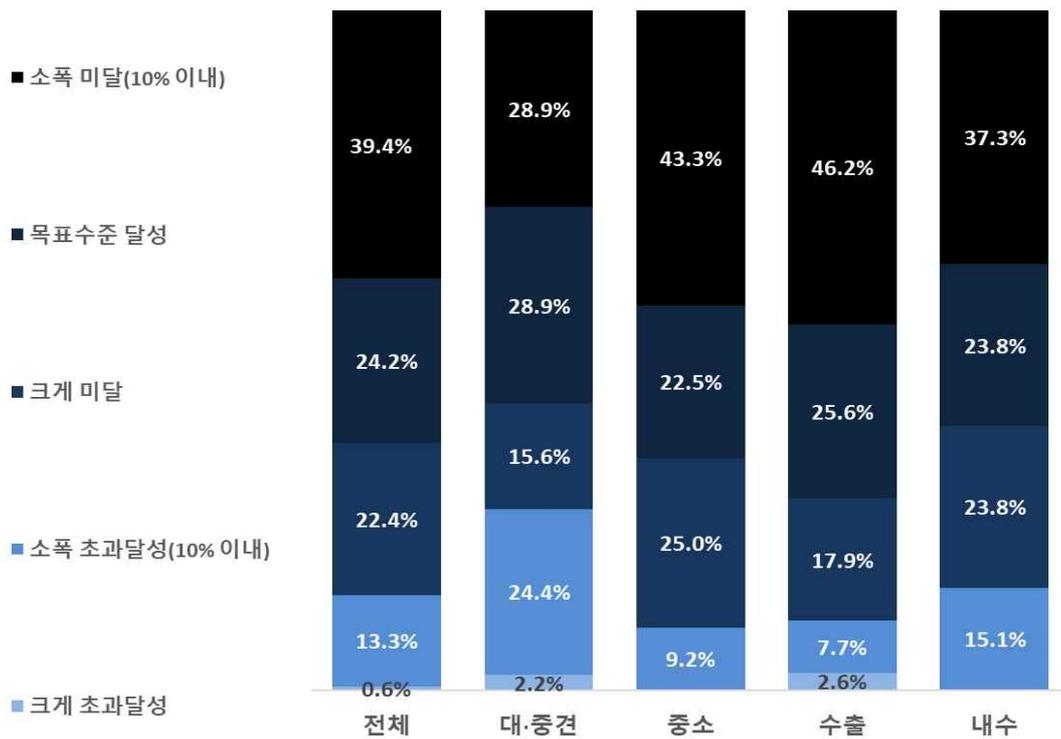


-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조선, 항공산업 등을 포함하는 분야로 창원지역의 중요한 주력산업임. 친환경 선박 수요와 수주 증가로 인한 조선업의 회복과 더불어 방위산업의 수요 증가로 항공엔진 등의 수출확대가 계속되면서 기타 운송장비의 실적과 전망이 기준치를 넘어섰음.
- 자동차·부품의 경우 친환경 규제, 원자재 가격변동 등의 리스크로 인해 실적과 전망이 하회한 것으로 보이며 철강금속의 경우 계속되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악화 인프라 투자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로 실적 BSI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임.

4.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

- 올해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업체의 39.4%가 ‘소폭 미달(10% 이내)’, 22.4%는 ‘크게 미달’로 답해, 61.8%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음.
- 반면 ‘목표 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답한 비중은 24.2%로 나타났고, ‘소폭 초과 달성(10% 이내)’ 13.3%, ‘크게 초과달성’은 0.6%로 답해 전체 38.2%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전망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에 대한 응답이 55.6%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31.7%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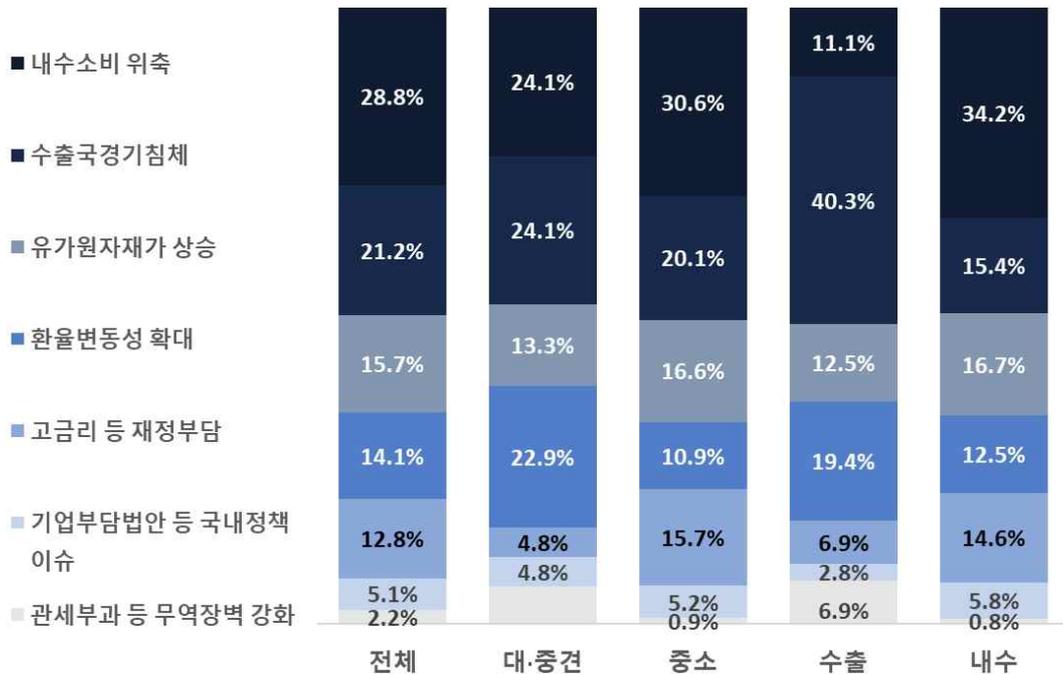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



5. 4분기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

- 4분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내수소비 위축’(28.8%)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음. 다음으로 ‘수출국 경기침체’(21.2%), ‘유가원자재가 상승’(15.7%), ‘환율변동성 확대’(14.1%), ‘고금리 등 재정부담’(12.8%), ‘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 이슈’(5.1%),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2.2%)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각각 ‘내수소비 위축’(24.1%, 30.6%)을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음.

4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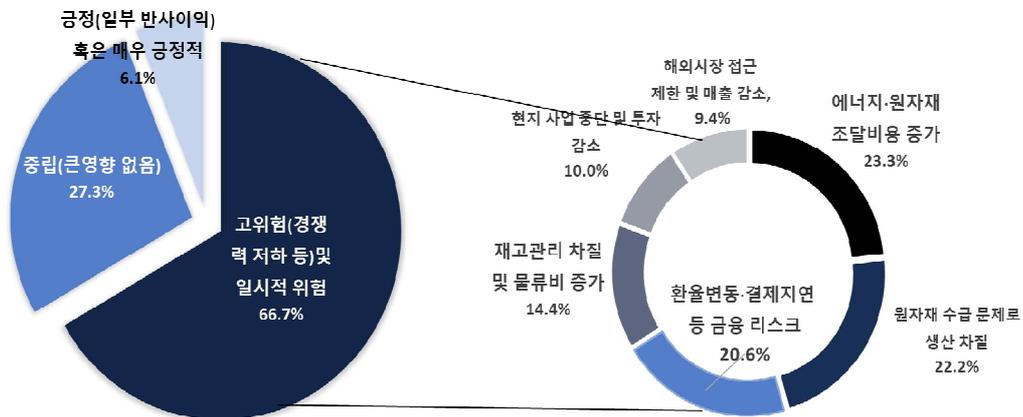
IV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1.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영 영향 및 피해

- 최근 지속되는 지정학 리스크(미·중갈등,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응답 업체의 66.7%는 ‘고위험(경쟁력 저하 등) 및 일시적 위험’으로 답했고, 27.3%는 ‘중립(큰 영향 없음)’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6.1%는 ‘긍정(일부 반사이익) 혹은 매우 긍정적’으로 답했음.
- ‘경영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험한 피해에 대한 질문에는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23.3%),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22.2%), ‘환율변동·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20.6%),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4.4%),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10.0%),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9.4%) 순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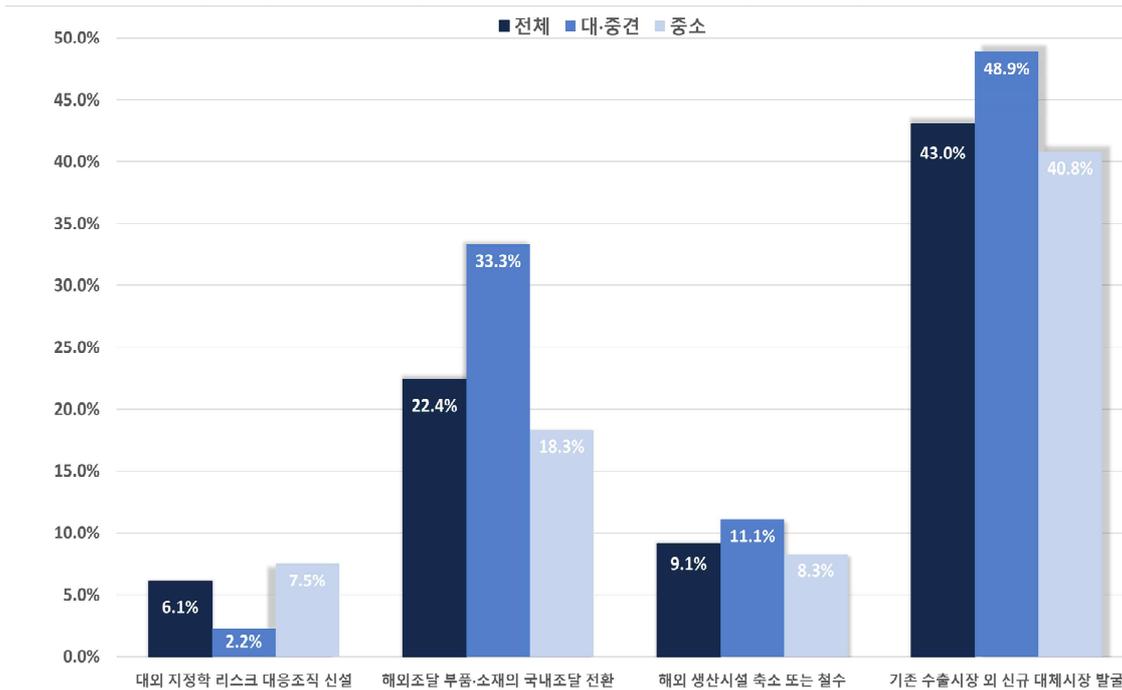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험한 피해



2.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기업운영에 발생한 변화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존 수출시장 외 신규 대체시장 발굴’이 4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다음으로 ‘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전환’(22.4%), ‘해외 생산시설 축소 또는 철수’(9.1%), ‘대외 지정학 리스크 대응조직 신설’(6.1%)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기존 수출시장 외 신규 대체시장 발굴’에 48.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중소기업은 4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이에 반해 ‘대외 지정학 리스크 대응조직 신설’은 대·중견, 중소 각각 2.2%, 7.5%로 가장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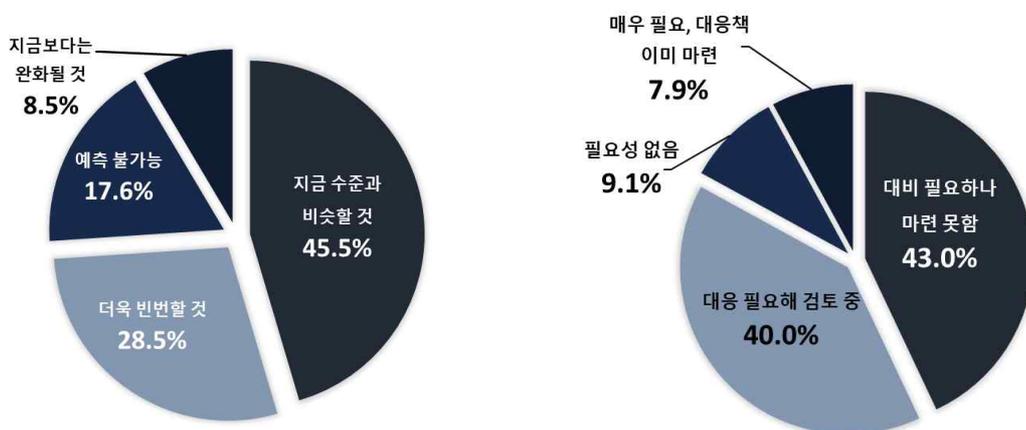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



3.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과 대비 필요성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45.5%가 ‘지금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답했음. 28.5%는 ‘더욱 빈번할 것’으로 응답했고, 17.6%는 ‘예측 불가능’, 8.5%는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답했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과(좌)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우)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43.0%는 ‘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으로 답했고, 40.0%는 ‘대응 필요해 검토 중’, 7.9%는 ‘매우 필요, 대응책 이미 마련’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9.1%는 ‘필요성 없음’으로 답했음.

4.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운영 전략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했거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강화’에 33.5%가 답했음. 다음으로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27.2%),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22.0%),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13.8%), ‘글로벌 사업 축소’(3.5%) 순으로 답했음.
- 현재 지역기업들은 내부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중견의 경우 대체시장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내부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전략

